

均 如 傳

南 豐 鉉
(檀國大 敎授, 國語學)

I

우리의 古代 先人들이 수준 높은 文字生活를 하였었고 따라서 많은 記錄物들을 남겼었음은 현재 단편적으로 전하여 오는 자료들을 살펴봐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느 시대의 기록물이나 시간이 흘러가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양에 비하면 특히 심하여 현재 남아 전하는 것은 九牛一毛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희소하다. 그런 가운데서 高麗初期의 鄉歌가 실린 均如傳이 전하여진 것은 우리 국어 국문학도들을 위하여는 여간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균여전은 향가가 실린 文獻으로서는 三國遺事와 함께 雙璧을 이루는 것이어서 국어 국문학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본래는 당시 우리 문화의 主流를 이루었던 佛家에 관한 著述이어서 그 당시 문화의 斷面을 詳考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이 문화적인 내용들은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찾아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한 語學徒의 관점에서 이 책의 가치를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均如傳의 원이름은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으로 海印寺 高麗大藏經의 補板 속에 들어서 전해진 것이다. 본래 卷子本으로 판각되었던 것으

로 敎分通抄 제10권의 19葉에서 28葉까지의 분량이니 한 高僧傳의 傳記物로서는 그리 많지 않은 量이다.

그 내용은 本文을 10門으로 나누었고 그 앞뒤에 序와 後序를 붙였으니 모두 12項目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赫連挺의 序
初 降誕靈驗分
二 出家請益分
三 姉妹齊賢分
四 立義定宗分
五 解釋諸章分
六 感通神異分
七 歌行化世分
八 譯歌現德分
九 感應降魔分
十 變易生死分
赫連挺의 後序

이들 각 項의 內容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II

赫連挺의 序와 後序에 의하여 이 책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華嚴學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義相에 의하여서였고 高麗朝에서 널리 보급되게 된 것은 均如에 의하여서였다. 그런데 崔致遠이 지은 義相傳은 있으나 均如의 傳이 없어 애석해 하던 중 근래에 殿中省內給事 康惟顯이 均如의 行迹을 수집한 것이 있었으나 탈락된 것이 많아 유감스러웠다. 威雍 10年(1074年, 高麗文宗 28年)에 大師 昶雲이 均如의 實錄 舊藁를 보이면서 傳記를 지어주기를 부탁함에 이듬해 봄에 이를 지어 序

를 쓴다고 하였다. 後序에는 ‘咸雍十一年 正月 日 後序’라고 하였으니 이 傳은 1075年 正月에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板刻된 것은 高麗大藏經이 새겨진 1250年 무렵일 것이니, 쓰여진 후 한 世紀 半이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形態로 전해진 것이다.

赫連挺은 高麗史에 그 이름이 두 번 나타나는데, 肅宗 5年(1100年) 11월에 遼에 使臣으로 보냈다는 기록과 睿宗 卽位年(1105年) 11월에 長樂殿學士 判諸學院事로 삼았다는 記錄으로 보아 당시에 이름 높은 文士였음을 알 수 있다. 均如傳의 序文에서는 前進士라고만 하였으니 그가 아직 젊었을 때에 이 傳記를 지은 것이다.

Ⅲ

均如의 俗姓은 邊氏이고 諱가 均如이다. ‘圓通兩重大師’의 圓通은 그의 別稱으로 쓰였다. 天祐 20年(923年, 新羅景明王 7年, 高麗太祖 6年)에 黃州의 북쪽 荊岳山의 南麓에서 태어났다. 15세(志學之歲)에 復興寺(黃海道 金川군에 있었다 함)의 識賢和尚에게 가서 배웠고 후에 靈通寺의 義順公에게서 敎理를 익혔다.

新羅末 海印寺에 華嚴宗의 두 司宗이 있었는데 한 분은 觀惠公으로 甄萱의 福田이 되었고 한 분은 希朗公으로 高麗太祖의 福田이 되었었다. 이에 따라 두 門徒가 갈리게 되니 前者를 南岳, 後者를 北岳의 法門이라 했다. 均如是 北岳의 法孫으로서 두 法門이 하나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여 敎理를 세우고 宗旨를 定하니 국가에서 佛門의 及第者를 선발할 때 그의 敎理를 正統으로 삼아 그 門下에서 王師, 國師, 大師, 大德들이 많이 배출되었었다. 開寶 6年(973年, 光宗 24年) 6월에 歸法寺(開城에 있었음)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壽 51歲요, 出家하여 入寂하기까지는 37年이다. (以上 降誕靈驗分, 出家請益分, 立義定宗分, 變易生死分 참조)

이로써 보면 均如是 韓半島 中部地方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고 주로 光宗朝에 활동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가 지은 鄉歌는 高麗初期의 中部地

域方言을 반영하는 중요한 言語資料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國語史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기의 자료이다.

IV

鄉歌인 普賢十願歌 11수는 歌行化世分에 실려 있다. 한 사람이 남긴 鄉歌로는 가장 많은 분량이며 또 崔行歸의 漢譯歌가 있어 그 大意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鄉歌解讀의 열쇠는 여기서 찾게 된다. 11수의 명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禮敬諸佛歌	稱讚如來歌	廣修供養歌
懺悔業障歌	隨喜功德歌	請轉法輪歌
請佛住世歌	常隨佛學歌	恒順衆生歌
普皆迴向歌	揅結無盡歌	

이 노래들은 10句體의 定型을 갖춘 것인데 매구마다 띄어서 실었으므로, 句의 경계가 분명하니 해독이 그만큼 용이할 뿐 아니라 鄉歌의 기본 형식을 이해하는 표준도 된다.

均如는 外學으로서 詞惱에 익숙하였는데, 그 序文에 詞惱는 世人들이 회통하며 즐기는 도구이니 이에 의탁해서 世人들에게 華嚴思想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지은 것이라 하였다. 華嚴經은 60 卷本, 80 卷本, 40 卷本이 있는데 40 卷本の 普賢行願品이 이 노래의 바탕이다.

이 노래는 당시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어 牆壁에까지 쓰여지곤 하였었다. 노래에 神異함이 있다고 믿어져 널리 보급되었었다. 본래 전기 속에는 가사가 실려 있지 않았었던 것을 赫連挺이 편찬할 때 넣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노래에 대한 序文이 있는 것을 보면 記錄으로 전하던 것을 옮긴 것임이 확실하니 原作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것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 노래의 誤字에 대한 論議가 있으나 誤字가 있다면 赫連挺이 편찬한 이후에 생긴 것일 것이다.

解釋諸章分에는 均如의 記釋 10종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海印寺藏板으로 전하는 것이 4종 있다. 그 跋記를 보면 모두 方言(우리말) 또는 羅言(新羅語)이 들어 있었던 것을 삭제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中釋華嚴教分記 卷三 가운데 단 두 줄만이 ㅌ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ㅌ를 검토하면 原文인 漢文을 우리말로 풀어 읽기 위하여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부분은 釋讀口訣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均如의 記釋들에 方言이 들어 있었던 것을 삭제하였다고 한 것은 이 記釋들이 주로 釋讀口訣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ㅌ를 삭제하였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均如의 時代에는 釋讀口訣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주로 이를 가지고 記釋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 釋讀口訣을 보면 비록 2行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表記法이 均如鄉歌의 表記法과 공통되고 있다. 일찍이 梁在淵先生은 均如의 이 記釋들이 鄉札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이로 보면 그 추정은 매우 示唆하는 바가 깊은 것이다. 비록 이 記釋들이 鄉札이 아닌 釋讀口訣이지만, 釋讀口訣과 鄉札은 表裏 관계에 있어, 釋讀口訣이 母胎가 되어 鄉札表記가 발달한 것이기 때문이다. 均如傳의 鄉歌와 記釋들은 高麗初의 國語資料를 제공하여 주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큰 것이지만 우리말 表記法의 發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V

이 鄉歌에 대한 崔行歸의 漢譯詩는 譯歌現德分에 실려 있다. 이 漢譯詩는 10句體의 鄉歌를 七言八句의 漢詩로 번역한 것이므로 향가와 세부적인 표현까지 일치할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직접 대응하는 것이어서 鄉歌를 해독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譯詩의 序文에는 후대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이를 몇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序文에는 지금은 잊혀졌지만 당시까지 유명했던 우리 나라 詩僧들

을 열거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摩訶와 文則, 體元이 雅曲을 시작했고 元曉와 薄凡, 靈爽은 玄음을 보급시켰다. 定猷, 神亮과 같은 어진이는 玉韻을 드날렸고 純義, 大居와 같은 뛰어난 이는 瓊篇을 잘 지었다.

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元曉는 노래로써 俗人들을 敎化한 이로 널리 알려져 있고 大居는 三代目을 편찬한 大矩和尚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로 보거나 또 이 글의 前後文脈으로 보아 이들은 모두 당시까지 作品이 전해져 온 鄉歌의 名人들일 것이다.

2. 漢詩의 形式과 鄉歌의 形式을 대비하여 말함으로써 鄉歌形式의 특징을 말하였다.

漢詩는 중국어로 엮었으므로 五言七字로 琢磨했고 鄉歌는 우리말로 배열했으므로 三句六名으로 切磋했다.

고 한 것이 그것이다. ‘三句六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形式이냐에 대한 論議는 현재 분분하지만, 鄉歌의 특징을 잘 나타낸 용어임엔 틀림없다.

3. 鄉歌의 價値를 높이 評價하는 당시인들의 認識을 보여 주고 있다.

(漢詩와 鄉歌는) 聲音으로 논하면, 參星과 商星처럼 떨어져 있으므로 쉽게 구별될 수 있으나, 이치(내용)에 의거하면 창과 방패와 같아 強弱을 나눌 수가 없다.

고 하였고, 普賢十願歌에 대하여는

11首의 鄉歌는 文詞가 맑고 글귀가 아름다워 그 작품됨을 詞腦라 칭하지만, 貞觀(唐의 年號)의 詞를 업신여길 만하고 정교하기 賦의 첫머리와 같아 惠明의 賦에 비교될 만하다.

고 하였다. 이러한 文學觀은 후대의 儒學者들에게선 찾아 보기 힘든 것으로 當時人들의 言語・文字觀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證言이 된다.

4. 鄉札과 漢文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했다.

우리 나라의 才子名公은 漢詩를 이해하고 읊을 줄 알지마는 저 나라의 鴻儒碩德

들은 鄉歌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물며 漢文은 帝網이 交羅된 것과 같아서 우리 나라에서 쉽게 읽히지만 鄉札은 梵書를 連布한 것과 같아서 중국인들은 알기 어렵다. 梁宋의 名作들은 자주 우리 나라로 흘러 왔지만, 우리의 名作들은 저쪽으로 전해짐이 드물었다.

여기서 帝網交羅는 漢文의 表意文字性和 그 國際的인 性格을 말한 것이고 梵書連布는 鄉札의 表音文字性和 그 語順이 漢文의 語順과 차이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鄉札이란 용어는 문헌상으로는 여기서 유일하게 쓰인 것인데, 현재 전면적인 국어 표기 문장을 지칭하는 학술 용어로서 쓰이고 있다.

5. 薛聰에 대한 평가가 있다.

이것이 孔子가 이 땅에 살고자 했으나 우리 나라에 오지 못한 것이 아니며 薛翰林이 儒學을 (우리말로) 바꾸려 했으나 번거롭게 귀찮지만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이 평가는 佛家에서의 均如의 공헌과 儒家에서의 薛聰의 공헌을 비교한 평가로 생각된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 薛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記述하고 있지만 이는 그보다 연대적으로 앞선 記錄이고 借字表記의 성격도 말하고 있어서 중시해야 될 기록이다.

6. 普賢十願歌의 作詩年代를 보다 더 限定할 수 있게 해 준다.

普賢十願歌의 作詩연대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崔行歸의 序는 '宋曆八年 周正月 日 謹序'로 밝히고 있어서 이보다 앞서 普賢十願歌가 지어진 것임을 말해 준다. 宋曆八年은 967 년이고 均如가 入寂한 것은 973 년이니 이 序文은 均如가 入寂하기 6년 전에 쓰여진 것이다. 이 이전에 均如의 普賢十願歌가 쓰여진 것이라면, 이 作品은 10세기 5,6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崔行歸는 新羅末에 入唐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귀국하여서는 高麗에 귀의하여 文翰의 책임을 맡았던 崔彥撝의 아들로 그도 역시 중국에서 秘書郞까지 지냈었고 귀국하여서는 光宗의 倖臣이 되었다가 죄를 얻어 죽은 사람이다(高麗史 卷 92). 譯歌現德分에는 翰林學士 內議承旨 知制誥란 그

의 벼슬 이름이 있어 당시에 뛰어난 文士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그는 중국과 우리 나라의 文物에 정통한 사람이어서 양국의 문물을 자신있게 비교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그의 序文은 가치가 큰 것이다.

이상에서 均如傳의 가치를 주로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여 보았다. 이 밖에도 이 자료의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필자가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다. 앞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문헌에 나타난 字體에 대하여 추가하여 두어야 하겠다. 이 문헌에는 仏(佛), 禮(禮), 无(無), 灯(燈), 體(體), 盡(盡) 등의 俗字들이 보일 뿐 아니라, 菩薩의 略體字인 ‘𑖦’이 보인다. 이는 ‘菩’자와 ‘薩’자의 머릿부분을 따서 만든 글자이다. 이 略體字의 사용 연대는 매우 이질적으로 생각되는데 필자가 본 것으로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略體字의 年代는 이 문헌이 관각된 연대인 13세기 중엽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公式的인 刊行物에까지 이 字體가 쓰인 것을 보면 당시에는 극히 보편적으로 쓰였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略體字의 사용은 口訣의 略體字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字體는 중국에서도 쓰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古代 日本의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어서 文化的인 전파 과정을 고구하는 데도 중요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羅在淵, 均如大師研究, 中央大論文集 4, 1959.
 李載浩 譯, 三國遺事(附錄 均如傳), 韓國自由敎養推進會, 1967.
 崔南善 編, 增補 三國遺事(附錄 均如傳), 民衆書館, 1958.
 黃浪江, 均如論, 韓國文學作家論, 螢雪出版社, 1977.
 民族文化推進會影印, 三國遺事(附錄 均如傳), 1973.
 築島 裕, 假名. 日本語の世界 5, 中央公論社, 1981.